

국도 개량사업 예산 확보 총력

장수군, 국도 13호선 포함 7개 노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사업 제출

장수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노선으로 국도 13호선(장수~천천)을 포함한 총 7개 노선(총 연장 58.9km, 소요 사업비 4,975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2030년 도로건설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 기재부에서 일괄 예산을 요청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장수지역의 최대 현안은 국도 13호선(장수~천천) 도로시설 개량사업으로, 20년 숙원사업이다.

군은 장수(선창리)~천천(천천삼거리) 간 국도 개량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노선으로, 국도 시설 기준에 미흡해 최근 9년간 교통사고 92건(사망 8명)이 발생하는 등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도로구조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대형화물차, 농기계 등 저속운행차량으로 인한 상습 교통 혼잡 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노선이다.

이 때문에 장수군은 매년 국가계획에 해당 노선 개량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비용대비 편익(B/C) 미달로 미반영됐다.

이에 장수군은 금번 신청에는 기존 접근방식에서 탈피해 동부산악권에 위치한 열악한 교통환경을 적극 어필하기 위해 교통성, 안정성, 연계성 등

타당성 논리를 충분히 발굴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국도 13호선(장수~천천)은 향후 개통되는 천천 하이패스 IC로 인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이다"며 "불합리한 도로구조로 인해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전북도, 정부 관련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가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장수군을 방문해 행정부수 5대 도전경성(挑戰竟成)에 해당 노선 개선을 최우선 요구했으며, 김 지사 또한 장수군의 20년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행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식목일보다 앞당겨서 진행됐다.

행사 참여자들은 산림청의 주요 조림수종인 소나무 4천그루, 편백나무 16천그루를 식재했으며, 군은 추가로 등산로 일대에 산벚나무 등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유실수 및 조경수 800본을 참가자에 무료로 분양하며 내나무 갖기 캠페인도 병행했다.

군은 이밖에도 올해 251ha의 면적에 경계수 조림과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저감 조림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국 산불 동시다발적 발생에 따라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산림의 중요성과 소중함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나무를 소중하게 가꾸고 조성해 경제적·공익적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장수군, 소나무·편백나무 식재·내나무 갖기 캠페인 등 진행

장수군은 지난 24일 산서면 동화리 기념행사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친다.



장수군은 지난 24일 산서면 동화리 산61 정풍산 일원에서 제78회 식목일 기념행사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무주군,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비 지원

무주군이 농촌 미래형 신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필한 농가와 희망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비 지원(2023 신규시책)에 나선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가공의 2차 산업과 제

림·관광 등의 서비스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무주군 지역 내 열정농부가 잘 키운 농산물로 직접 제품을 만들어 도시민에게 판매하고, 치유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등 농가소득 및 도농상생의 신산업으로 꼽힌다.

희망지는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을 신청, 확인서를 득한후 무주군 푸드플랜팅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예산소진시까지 현장코칭비 자부담 50%를 지원한다.

신청된 농가는 유통전문가를 초청한 품평회, 수출 컨설팅, 판로 확대에 대한 노하우도 전문위원으로부터 코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케팅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컨설팅을 받아 만들어진 제품 시안은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는 비용도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 '섬김행정' 새 지평 열었다

무주군, 산업건설국 소관 37개 주요사업 주민설명회 호평

무주군이 진행하고 있는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사업 주민설명회가 '섬김행정'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적삼면을 시작으로 13일 설천면, 23일 무풍면, 27일 무주읍, 다음달 10일 안성면, 25일 부남면을 순회하면서 2023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사업 주민설명회는 공감 및 소통행정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주민들의 평가다.

산업건설국 소관(산업경제, 산림복지, 건설, 안전재난, 환경과) 부서가 일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5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역점사업들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청취해 군정에 반영하기로 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읍·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장들이 참여해 군정의 역점 및 현안사업을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청취,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고 있어 주민설명회에 대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 △무주사랑 구매제도 상황을 비롯해 △고령화 사회



에 대응한 무주형 일자리 확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목재펠릿과 임업직불제, △산불예방 홍보와 해빙기 안전관리 강조 △지나해와 달라지는 사항과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37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 또 △군민안전보험 확대(39개 항목),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도시,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 등을 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현안 및 역점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산업건설국 이종현 국장은 "행정과 이장단은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견인하는 원팀"이라며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잘 알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유아숲 체험원 조성 나선다

무주군이 유아 숲에서 맘껏 뛰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설천면 반디랜드 및 백운산생태숲 일원에 유아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유아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 5억 원(도비 3억, 군비 2억)을 투입해 조성할 유아숲 체험원은 1ha 규모에 목재 징검다리와 목재놀이 기구, 야외체험학습장, 휴게시설 등 교육 및 체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에 군은 오는 5월까지 기본 및 시설설계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착공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공하면 오는 2024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숲이 주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의 장과 인공 시설보다는 자연 체험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통해 바른 양치 습속교육을 비롯한 개별 구강보건교육, 임내원인 및 관리법, 구강관리법, 칫솔관리법 등을 알기쉽게 교육한다.

구강보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교육 및 진료를 진행하며, 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와 치아 홈 메우기, 치면세정술, 바른 양치 습속교육 등을 아울러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원은 검진결과에 따라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악취실태조사 등 용역결과 주민설명회 가져

진안군은 마령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용역',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방안 마련 용역' 최종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군은 마령면 지역 주민의 악취관련 민원과 관련해 주민 생활권 보장 및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2년도에 환경위생팀 악취실태조사와 환경산업기술원 시행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방안 마련 용역 공모에 응모·선정돼 총 4억5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해

용역을 실시했다.

설명회에는 마령면 오동마을 주민을 비롯해 악취 영향권 마을이장과 주민, 진안군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진안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악취물질의 효율적인 저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토양·지하수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물질별 정화와 모나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방치 폐기물 대책 마련 집중

진안군은 지난 24일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청에서 읍·면 부서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적극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읍·면별 방치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수거와 운반처리방법을 결정한 후 이번 수거 처리기간에는 공공시설 용지 및 장소에 용지나 방치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책무를 부여하고 1개월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3월 27일~4월 7일까지 환경과와 관내 11개 해당읍면 공무원들이 일제출장을 실시해 방치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방치된 폐기물에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4월 10일~5월 19일까지 파악된 방치 폐기물은 읍·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매립장 반입 처리하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 내 민간위탁업체와 연계해 일괄 수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무주초등학교 찾아가는 구강보건실 운영

무주군이 무주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9:30~12:00)에 무주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전교 어린이 185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통해 바른 양치 습속교육을 비롯한 개별 구강보건교육, 임내원인 및 관리법, 구강관리법, 칫솔관리법 등을 알기쉽게 교육한다.

구강보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교육 및 진료를 진행하며, 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와 치아 홈 메우기, 치면세정술, 바른 양치 습속교육 등을 아울러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원은 검진결과에 따라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